

“위기는 극복하고 시민 삶은 책임지겠다”

조지훈 전주시장, 인구 위기 현실·앞으로 추진할 인구정책 담은 논평 발표

조지훈 전주시장이 가파른 인구 감소라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인구 절벽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전주 발전과 번영을 앞당길 인구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지훈 시장은 11일 ‘무너진 전주시 62만 인구·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인구정책은 단순히 시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등 도시의 미래와 직결한 종합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민선9기 전주시는 인구 절벽의 위협을 해소하고 구조적 전환의 기틀을 놓아, 전주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시 인구는 총 61만9849명으로 집계돼, 지난 2023년 인구 65만 명이 무너진 후 2년 7개월 동안 2만2878명이 전주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출생율과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대한민국 지방도시의 공통적인 인구 위기 속에서도 다소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민선9기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재정과 함께 인구를 설정하고, 남은 4년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기존 인구정책

위원회를 시장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하고, 모든 정책과 계획·사업 전반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인구요인을 반영하는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인구 문제의 핵심이 일자리와 주거인 만큼, 전주시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현황과 대안을 전수 조사한다.

특히 시는 일자리와 인구 변동을 연계한 현황판을 시장실에 설치하고, 시장이 매일 변화와 조치들을 추적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청년 주택을 확충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전담 추진 체계를 조직 개편시 반영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 남는 전주 취업을 끌어올려 전주와 전북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급부상한 피지컬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맞춰 혁신도시를 혁신하는 주거·교통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민선9기 전주시는 어려움을 감추지 않겠다. 모든 상황을 시민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찾겠다”면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은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위기는 극복하고 시민의 삶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민·관·산·학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출범했다.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현 협력

전주시 민·관·산·학,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협약 체결

전주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민·관·산·학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출범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오춘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 오창환),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이승환), 우석대학교 빅데이터사회정책연구소(소장 지용승), 에이트투프(대표 김대훈)는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은 AI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플랫폼인 ‘그라가차(Gragacha)’를 활용해 소비기한 임박 식품의 안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를 탄소감축 실천으로 연결하는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행 프로그램 운영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의 ESG 참여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활성화 △AI 기반 탄소감축 데이터 구축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과 사회연대경제기업,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산·학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기관들은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발전시켜 전주시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日 가나자와시, 도서관 정책 교류 강화

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가나자와시 우미미라이도서관 정책 교류 간담회·협력 강화 협약 체결

전주시와 일본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 25주년을 앞두고 도서관 정책 교류와 우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조지훈 전주시장과 김인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무라이바 다카시 가나자와 가나자와시장과 미즈요시 겐이치 우미미라이도서관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가나자와시 우미미라이도서관 정책 교류 간담회 및 MOU 갱신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 도서관은 지난 2015년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상호 27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하며 돈독한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서관은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전주시와 일본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 25주년을 앞두고 도서관 정책 교류와 우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가나자와시 방문단은 전주시의 선진 도서관정책과 독창적인 책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했다.

디지털 도서 자료 및 도서관 관련 사업 교류 조항을 새롭게 추가해 양 도서관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체결식에서는 양 도서관 간 우호 증진의 의미를 담아 각 50권

의 도서를 상호 기증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가나자와시 방문단은 전주시의 선진 도서관정책과 독창적인 책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했다.

방문단은 △시민들의 열린 공간인 ‘책가도서관’ △트윈세대(12~16세) 전용 우주로1216 갖춘 개방형 공간인 ‘전주시립도서관 북실’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음악 특화 도서관인 ‘아중호수도서관’ 등 전주의 대표적인 특성화도서관들을 차례로 견학했으며, 도서관 여행 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공간별 특화 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펴며 양국의 우수 도서관 정책을 깊이 있게 공유했다.

한편, 전주시 연화정도서관에서는 지난 6일부터 30일까지 가나자와시 우미미라이도서관이 기증한 이시카와현 향토도서 및 수상작 원서·한글 번역본 등을 선보이는 특별 도서 전시를 진행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한옥마을 내 무질서한 전통차 운행 계도·단속 강화

전주시가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전통차 운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시는 완산경찰서·완산구청과 협력해 연중 관광객이 붐비는 전주한옥마을 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통차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한옥마을사업소·완산구청·완

산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순찰반을 편성해 한옥마을 주요 관광 거점과 보행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합동순찰반은 한옥마을 내 및 인접 전용차 대여업체 대상으로 △원동기 면허 확인 철저 △안전모 착용 의무화 △보행자 보호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평화사회복지관, ‘청춘별채’ 입주 청년 주방 생활용품 지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전길배)이 평화동 청춘별채에 입주한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평화사회복지관은 11일 평화동 청춘별채에서 입주 청년 24명에게 주방 생활용품(밥·도마 세트 24개)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초기 주거 부담을 덜고, 실생활



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폭염 대비 전통시장 재난 대응 총력

전주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전통시장 화재 위험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운영질환을 예방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는 폭염특보에 대응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남부시장변영회와 함께 얼음생수 무료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폭염에 취약한 상인과 이용객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해 운영질환

을 예방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는 최근 발생한 전주 농산물시장 화재와 관련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시장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계자 간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폭염에 따른 안전관리 및 운영질환 예방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 대응 △상인회와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유산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

김제 벽골제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인 사적 제111호 벽골제는 경제지 무량면 상용리에서 완성에 걸린 약 8km에 이르는 제방(무 개)의 수문 장성(경계)과 경정(계) 포함) 1415년 전립벽골제 중수비를 포함하여 1963년 1월 21일에 국가사적 제11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국가사적 벽골제와 그 배경인 김제만경도벽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김제시는 1975년 벽골제 부분발굴을 필두로 1980년 유적정리공사, 1980년 개발위원회 구성 및 추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문화관광공간을 조성했다.

현 벽골제단지에는 벽골제와 농경문화를 대주제로 전시 및 자료수집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김제를 발원지로 일제강점기를 따른 소설 아리랑의 자료를 전시하는 아리랑문학관, 그리고 전북미술제의 거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나상목선생의 벽천미술관과 농경사를 주제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김제 우도농악관 등 문화시설과 각종 야외전시로 구성돼 있다.

사적 벽골제와 각 박물관들은 오래된 고을, 김제의 지역정체성 및 문화를 대내외에 전명하는 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백년지대 김제를 표방하고 있다.

- 출처: 김제시청 홈페이지 -

전주매일 캠페인

김제시청 제공